

‘오월 광장’ 금남로, 다시 민주주의로 물들다

518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주먹밥 나눔·달리기·행진까지...시민 참여 행사 다채 헌혈 가두방송 재연·‘민주의 밤’ 개막...“공동체 기억”

1980년 5월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로 뜨겁게 타올랐던 광주 금남로가 46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의 물결로 가득 차다. 주먹밥을 나누고, 오월의 길을 함께 달리며, 거리 행진과 공연으로 광장을 채운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가 지난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금남로는 이날 하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로 가득 차며 다시 ‘오월 광장’으로 되살아났다.

금남로 곳곳에 마련된 시민안정 체험부스에는 학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함께 걷고, 달리고, 노래하며 오월 정신을 체험했다. 광장은 자연스럽게 나눔과 연대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주상인연합회 등이 운영한 ‘오월의 주먹밥, 희망을 나누다’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서로 건네며 공동체 정신을 나눴다. 1980년 시민들이 서로를 살리기 위해 주먹밥을 나눠준 기억을 오늘 의 연대로 이어가는 시간이었다.

문성고등학교 동아리 ‘리더서밋’은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5·18

기억하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체험객들과 함께 ‘오월을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이어집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키링과 팔찌를 만들며 오월 정신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가래떡 나눔과 오월꽃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하경 문성고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시민들과 직접 나누며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험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옛 전남도청과 옛 상무대 등 5·18 사적지를 퍼즐로 맞추며 자연스럽게 오월의 역사를 접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완성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었다.

광주시사회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광주·전남 고등학교 헌혈 홍보대사 ‘레드캠페이너’들은 흰 가운과 교련복 차림으로 1980년 당시 헌혈 참여를 호소하던 가두방송을 재연했다. 참가자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외침을 통해 긴박했던 오월의 순간을 생생히 체험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광주시민

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다”며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외쳐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전일빌딩245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당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기록을 남기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오월의 흔적을 기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3시부터는 ‘RUN 5·18, 도청 가는 길’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남대와 광주역, 대인광장, 금남로,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지는 5.18km 구간을 달리며 1980년 5월 시민들이 걸었던 길을 몸소 따라갔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1980년 금남로로 향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가자 도청으로’, ‘5·18 헌법정신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주고와 북동성당, 광주역 등에서 출발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하며 민주주의의 계승 의지를 다졌다.

오후 5시18분부터는 5·18민주광장 분수대 특설무대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민주의 밤’이 열렸다.

올해 처음 선보인 ‘민주의 밤’은 기존 전야제를 확장한 행사로, 광장 시계탑에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연주와 묵념으로 막을 올렸다.

주최 측은 이날 금남로 일대에 1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세대를 넘어 함께 걷고 노래하며, 1980년 5월 광주가 남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독립대학교 한국 교원 유학생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의 운다’ 소설 주인공 문재혁 열사의 묘역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이틀 앞두고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평화대행진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 왼쪽부터) 전두환의 사진을 철거한 시민들과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중학생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월 정신을 헌법에”...5·18민주묘지서 추모·다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제46주년 추모식 엄수 “헌법 전문 수록 무산 아쉬워...끝까지 요구할 것”

“46년 전 광주의 오월 정신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이번 추모식은 1981년부터 이어져 온 5·18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오월어머니, 국회의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전통 제례 형식의 추모제를 시작으로 1부 추모제와 2부 추모식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제 제단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의 조화가 놓였다. 양재혁 5·18유족회장, 신극정 5·18부상자회장, 윤남식 5·18공로자회장은 각각 초헌·야헌·중헌을 맡아 헌작했다.

이어진 추모식에서는 ‘광주 5·18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모사, 인사말, 추모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분향 등

이 진행되며 오월 정신 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기정 시장은 “46년 동안 우리는 슬픔과 화해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본 소식을 듣고 오고 싶었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령들 앞에 빈손으로 와 송구하고 참담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6년 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끝까지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혁 유족회장도 “오월은 단순한 지난 시간이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 묻는 질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며 “1980년 광주의 희생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돼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단순한 역사 기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 무산을 비판했다.

양재혁 유족회장과 추혜성 오월어머니 집 회원, 박영선 전 5·18부상자회 광주시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국민의힘은 매년 5월 광주를 찾아 5·18 정신 계승을 말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했었지만 정작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실질적 조치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반대 당론과 표결 회피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말뿐인 참배와 정치적 쇼를 중단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헌법 전문 수록 논의

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또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져 어떤 권력도 불법 계엄과 내란을 꿈꾸지 못하는 민주공화국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